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EXIT에 따른 이익공유 방안
- 수익창출과 연구개발재투자를 위한 법,제도의 한계 -

2014. 01. 15.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장기기술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의 의의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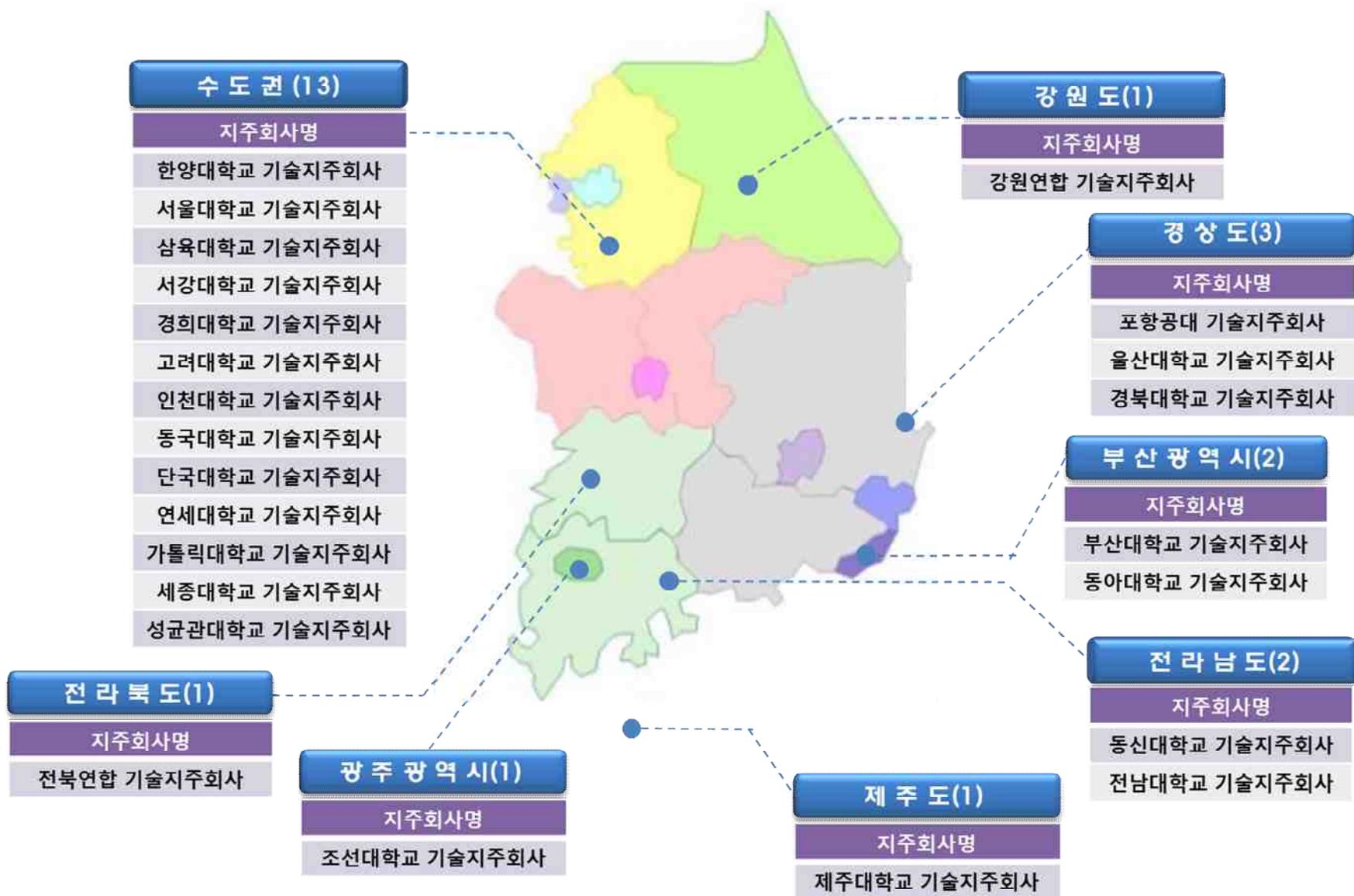
- 대학기술의 직접사업화-연구개발재투자 선순환구조 확립 -

□ 교육과학기술부(김도연 장관)는 2008.7.24(목) 국내 제1호 대학 기술지주회사인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영문명 : HYU Holdings)” 설립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 대학기술사업화의 혁신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최초 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대학의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와 대학재정에의 기여, 나아가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데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 대학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그 첫발을 내디딤으로서 대학기술사업화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산학협력사업의 핵심축인 커넥트코리아 선도TLO(기술이전센터)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대학기술사업화의 혁신적 모델과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R&D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지주회사 설립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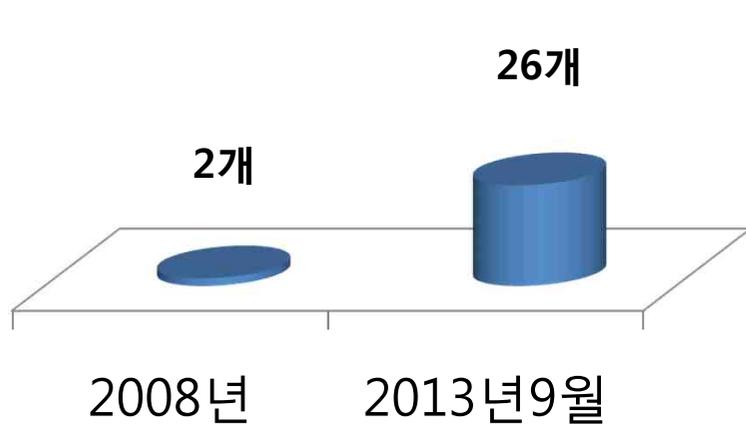


2013년 상반기말 기준 총 24개사 설립 완료, 한양대 에리카, 한남대 등 설립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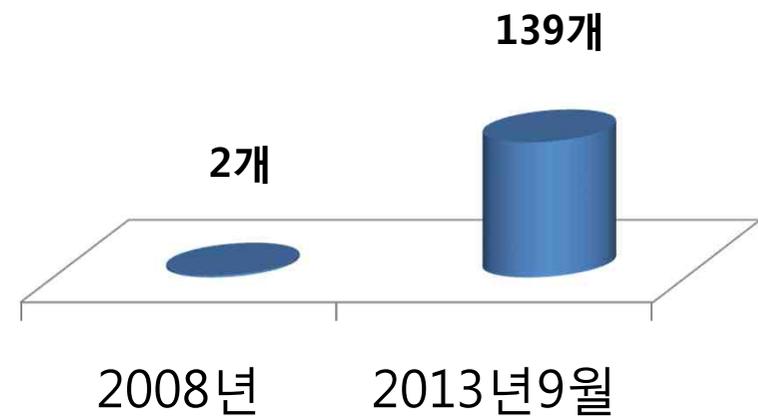
기술지주회사/자회사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기술지주회사	2	6	5	3	7	3
누적	2	8	13	16	23	26
자회사	2	15	27	30	44	21
누적	2	17	44	74	118	139

기술지주회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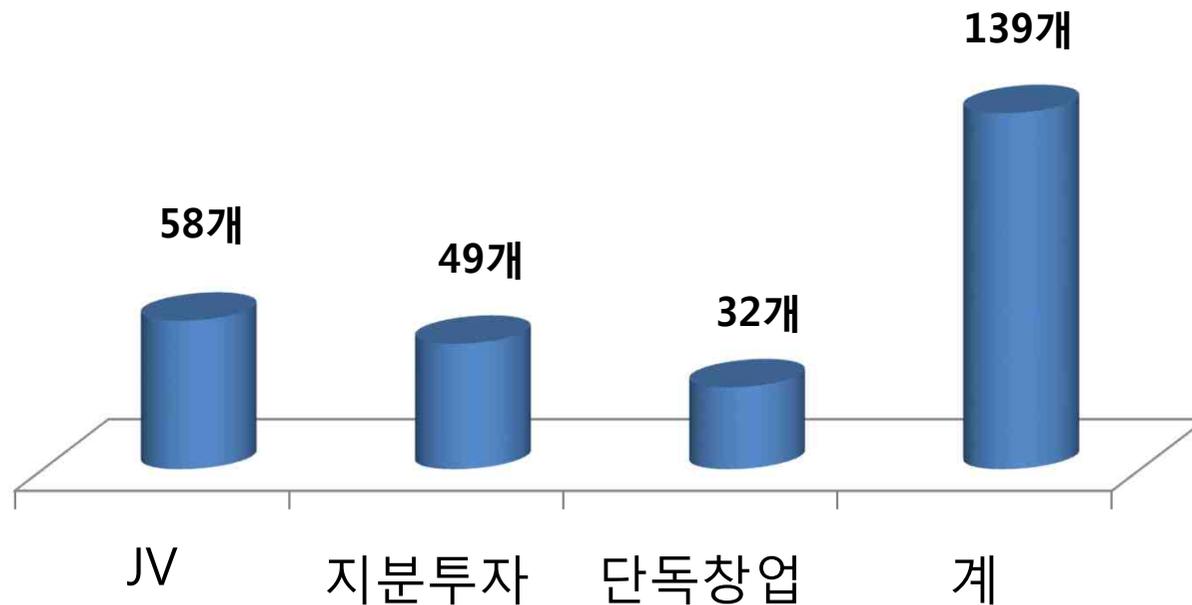


자회사 수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형태

설립형태	자회사 수
조인트벤처형 창업	58
지분투자	49
단독창업	32
계	139



기술지주회사 투자회수 현황

2013. 03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배당, 지분매각	자체수익	소계
부산대	2,000.0	0.0	2,000.0
서울대	1,000.0	144.0	1,144.0
한양대	300.0	335.0	635.0
고려대	250.2	162.0	412.0
인천대	342.0	41.0	383.0
.....
합계	4,351.9	744.5	5,096.3

- 기술지주회사의 배당, 지분매각, 기타 자체 수익활동을 통한 누적 수익은 약 51억원이지만,
산학협력단으로 원활하게 수익이 공유된 사례는 아직 없음

현 대학기술지주회사제도의 진단

- 창조경제시대에 있어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기여 측면
 - : 2008년 이후 5년간 자회사 139개 설립
 - : 2012년 자회사 매출 321억원
 - : 2012년 말 기준 118개 자회사에서 785명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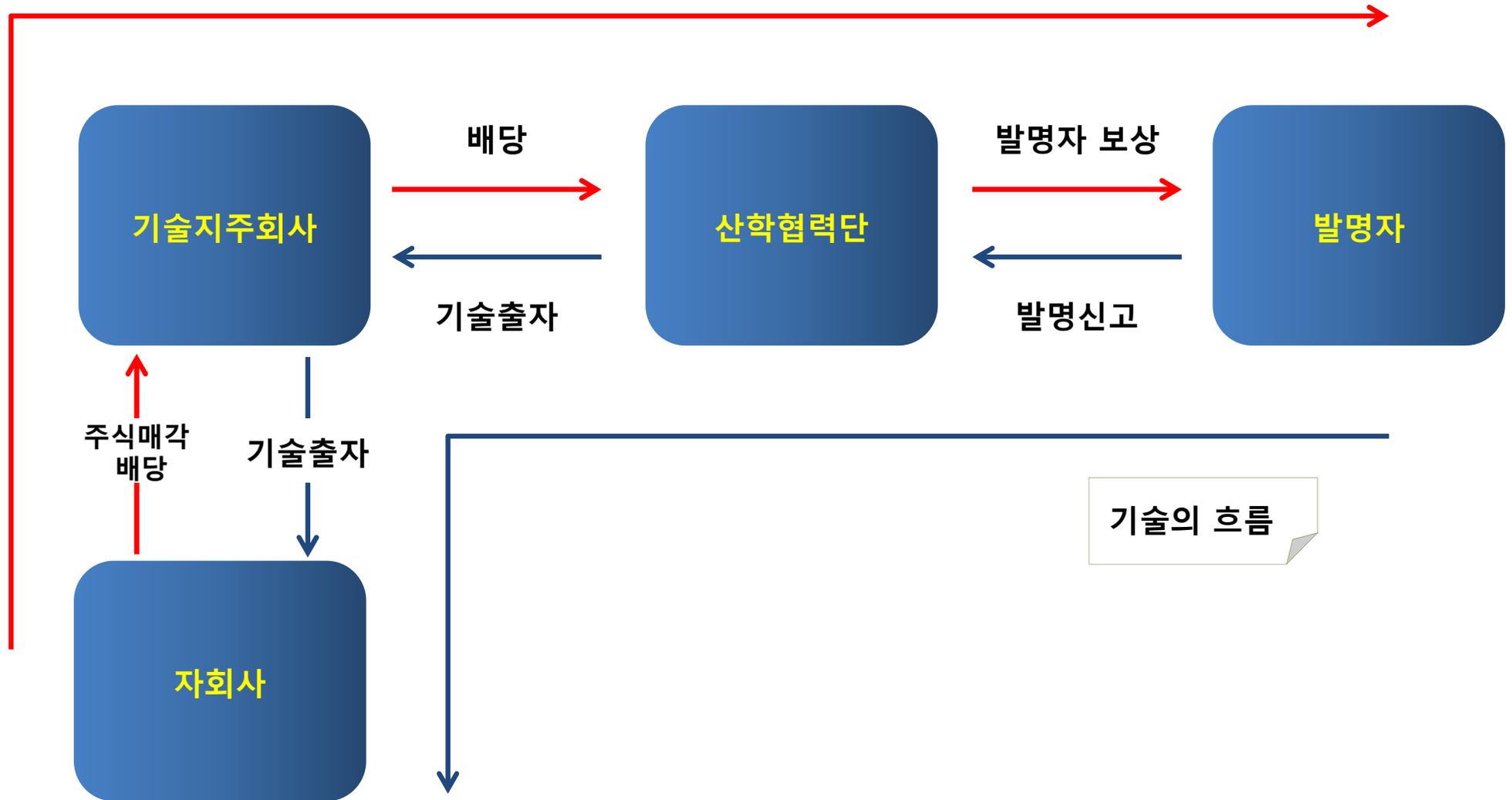
* 자료 출처 : 2008-201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성과

- 발명자 보상, 대학재정기여를 통한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 측면
 - : 연결제무제표와 결손금 문제
 - : 발명자 보상의 시점과 방식(주식, 현금), 절차의 문제
 - ; 배당 등 이익 환원을 위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 불투명
 - : 사업화의 대전제인 High Risk, High Return 대원칙의 성립이 어려움

- 회사설립을 위한 Entrance는 넓어졌으나, Exit 이후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향후 발명자와 대학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어려워 지고 있음

기술지주회사 수익 발생시 배당 구조

사업화 수익의 흐름



기술의 흐름

주식매각 및 배당에 따른 보상 절차

수익발생 후 발명자 보상까지의 과정

자회사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발명자

매각이익

법인세

결손금

이익준비금

산단배당

발명자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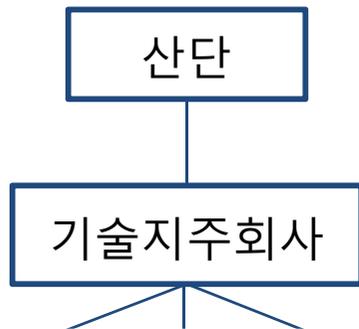
자회사 매각을 통한 기술지주회사의
수익에 대한 법인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타자회사의 손실 보전

회사의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해두는 제도

연결재무제표와 결손금

연결재무제표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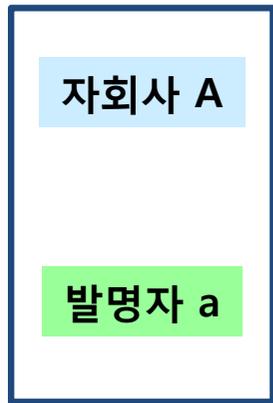


기술지주회사는 배당가능 이익이 있어야
주주(산단)에 대한 배당이 가능함

기술지주회사의 자본	수익의 변동
현금자본	-20
자회사 A	+50
자회사 B	-5
자회사 C	-10
자회사 D	-3
자회사 E	-2
배당가능 이익	10

보상 절차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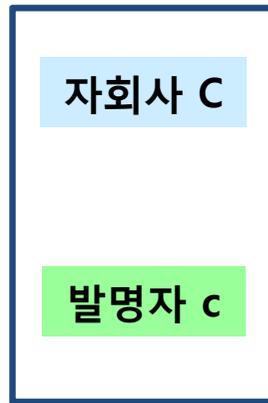
발명자와의 연계 문제



+50



-5



-10



-3



-2

10

타 발명자의 자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에 따라 발명자a 보상이 작아짐

자회사B의 2차 Exit 이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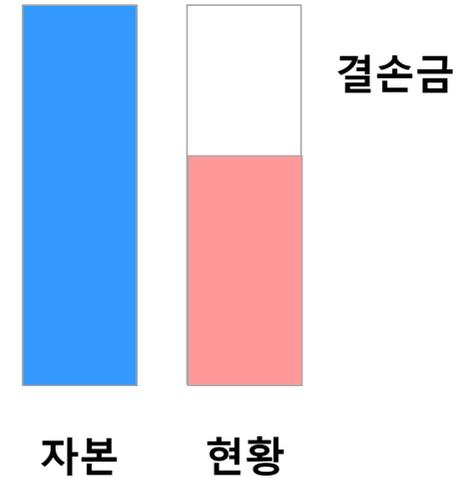
30

발명자a와 발명자 b간의 보상 형평성 문제

회피방안 1 : 주식감자 또는 기부

주식감자

- 감자 : 결손금 만큼의 기술주회사의 주식을 감자하여 배당을 진행
- 채권자나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함
- 1인 주주를 유지해야 용이하게 감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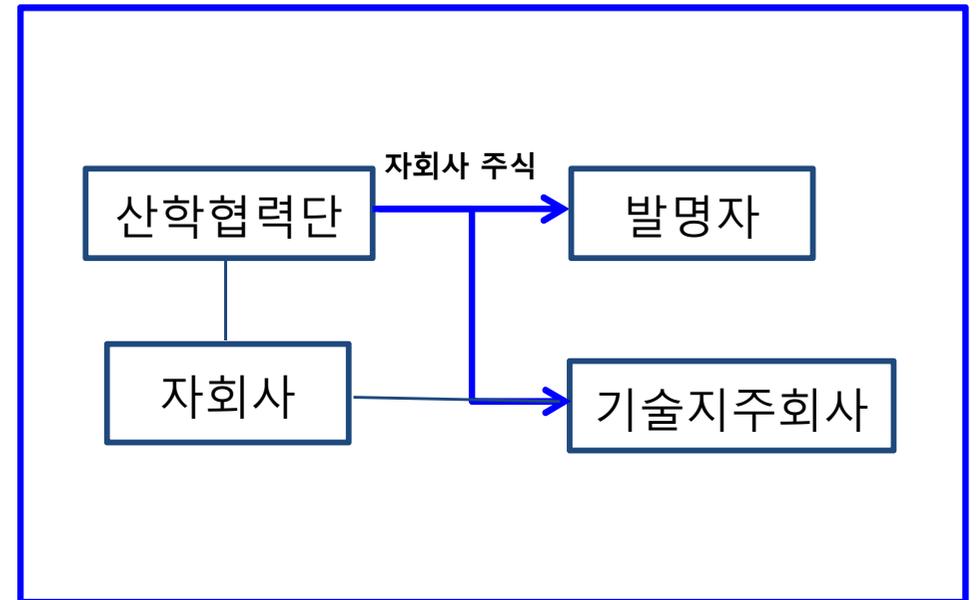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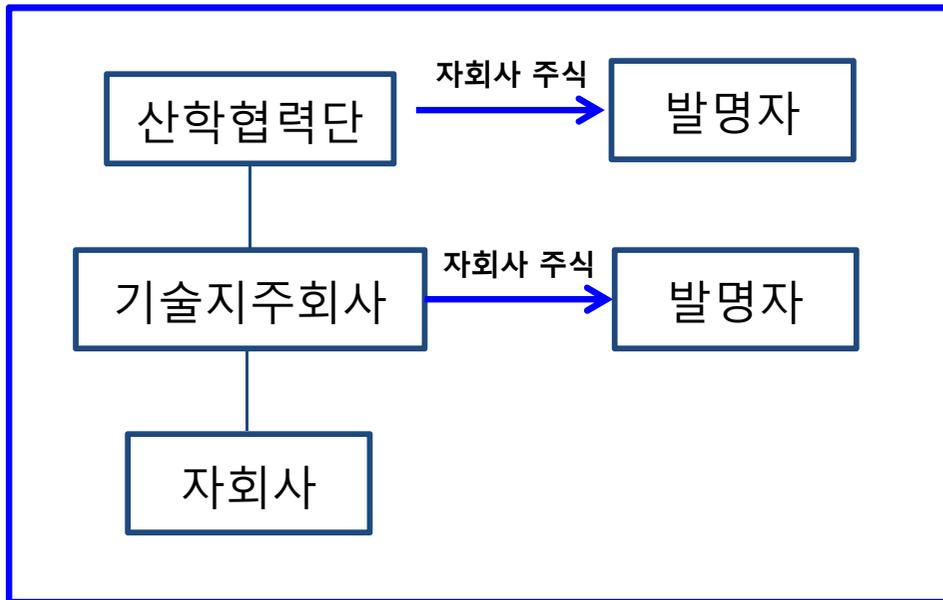
기부를 통한 보상

- 기술주회사의 이익금 만큼 대학(산단)에 기부를 통한 회피방법
- 기술주회사 이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로 국세청 감사 문제
- 발명자 보상의 가능성 문제

회피방안 2 : 자회사 주식으로 발명자 보상

주식보상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위험은 대학(산단)에서 부담
- 발명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발명자의 Ownership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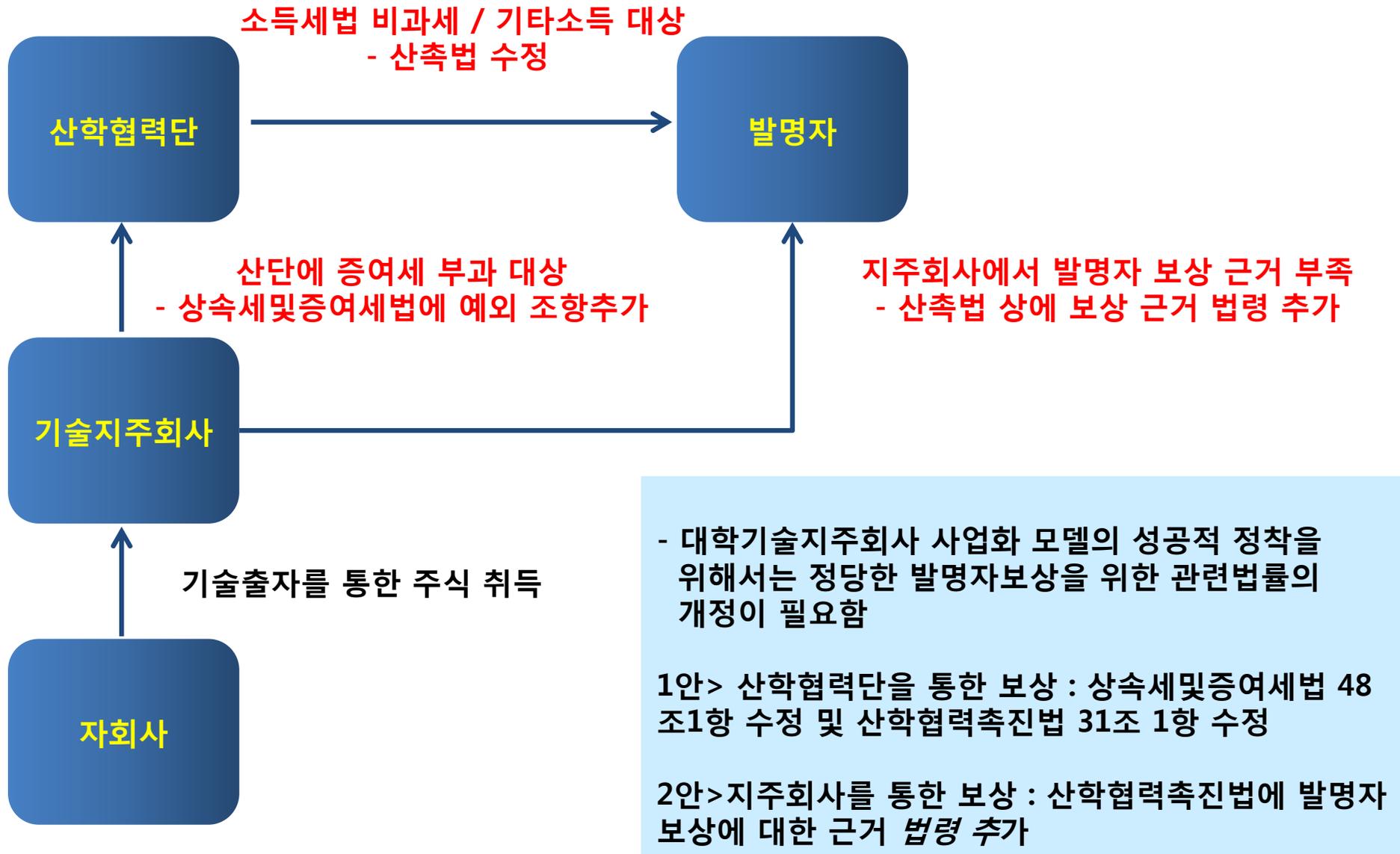


문제점

- 산학협력단에서 보상시 산학협력단 및 발명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 기술지주회사에서 보상시 발명자에게 증여세 부과

- 발명자에 대한 세금 문제
- 이중출자에 따른 부과세 부담 문제

제안 : 발명자 보상에 대한 입법론적인 접근 필요



감사합니다!